

광명시, 신중년 강사들 배움 나눔으로 인생2막

열린교실 출신 11명 다양한 기관서 강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 공유하며 평생학습 문화 확산

경기도 광명시가 신중년(50~64세)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시키며 새로운 배움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25일 시는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 신중년 시민강사 양성 프로그램 '빛나는 열린교실'이 배출한 강사 11명이 지역 곳곳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배움의 선순환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기와 올해 2기에 참여한 26명의 시민강사 중 절반 가까이가 '빛나는 열린교실'에서 쌓은 강의 경험을 살려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사 활동을 이어가는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빛나는 열린교실'은 강의 경력 3년 이하의 신중년 시민강사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를 기획·운영하는 시민 주도형 열린 강좌 프로그램이다. 신중년들의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고 신중년 세대가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2기 동안 재무, 인문·교양, 디지털인공지능(AI), 문화·예술, 건강·웰빙, 기록·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이뤄졌다. '빛나는 열린교실' 시민강사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강의



광명시가 신중년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선순환하며 새로운 배움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빛나는 열린교실 시민강사가 '디지털·인공지능(AI)' 강의를 펼치고 있다. 광명시

만족도는 1기 92%, 2기 96%를 기록했으며 수요율도 1기 78%(263명 중 206명)에서 2기 81%(185명 중 149명)로 상승했다. 올해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기' 강의를 수강한 한 시민은 "지난해 힘든 일을 겪

으며 방향의 시간을 보냈는데 시민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눈높이에 맞게 풀어준 강의를 들으며 큰 공감을 얻었다"며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

런 강의를 더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빛나는 열린교실'은 신중년에게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며 또 다른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배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역 안에서 서로 나누고 다시 새로운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운영, 강사 채용 정보 공유 등 후속 지원을 지속하며 시민강사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도와 배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안산시장직 준비위원회가 청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

안산시장직 준비위원회 청년 정책간담회서 52건 공식 제안

민선9기 경기도 안산시장직 준비위원회가 2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내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정책제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책제안을 전달한 청년위원회는 안산을 사랑하는 청년 3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자발적인 청년 참여 캠페인과 정책토론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5월에는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제안을 당시 이민국 안산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초청해 기존에 제안된 청년정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민선9기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은 취업, 주거, 교통, 문화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주거 혁신 △주거 지원 확대 △미래 일자리 창출 등 총 10개 분야 52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시정 반영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안된 정책들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민선9기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남양주시, 금곡데이케어센터 개소... "유희공간이 건강복지공간으로"

마을회관 유희공간 활용해 건강복지 거점 마련 혈압·혈당 측정부터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남양주시는 24일 금곡동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금곡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곡데이케어센터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내부에는 혈압·혈당 측정기와 인바디 측정기, 안마기 등 다양한 건강관리 장비를 갖췄다.

특히 센터 조성에는 디지털국제공조, 카페 키스톤스피즈, 굿모닝집대, 케이제이호연을 비롯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와 나눔이 큰 힘을 보탰다. 금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 기획부터 공간 조성, 자원 발굴, 운영체제 마련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도 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금곡데이케어센터

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금곡데이케어센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나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헌신이 모여 탄생한 소중한 공간이다"라며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을, 주민들에게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 돼 지역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연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곡데이케어센터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건강교육, 디지털 교육, 문화·여가 프



남양주시가 24일 마을회관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금곡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남양주시

로그램 등을 운영해 센터를 지역 중심의 건강복지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양평군 '감염병 제로 스쿨'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 양평군이 24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콘퍼런스 '감염병 제로 스쿨(School)'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 양평군 보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평군은 교육 시설 내 감염병 집단 발생 시 학교와 보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마련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학교와 보건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2부는 '백일해 집단 발생 대응훈련'을 주제로 보건소와 학교 보건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절차를 점검했으며 전문가 강평이 이어졌다. 양평군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학교 내 감염병 집단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학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보건소와 학교가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거리상담

점심시간 활용 색채심리검사·딱지치기 활동 진행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강천초에서 학생·교직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운영했다. 여주시청소년복지센터

적인 메시지를 경험했다. 또한 간식과 홍보물을 제공하며 청소년

전화 1388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상담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딱지치기 활동이 재미있었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밝혔다.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읍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1388,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주=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이천시 장호원농협 '햇사레복숭아' 첫 출하



경기도 장호원농협이 대표 브랜드인 '햇사레복숭아'의 첫 출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돌입했다. 햇사레 복숭아는 뛰어난 당도와 풍부한 향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장호원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다. 장호원농협은 올해 첫 출하는 장호원읍 나라리 강돈원 조합원이 재배한 초극황도 품종, 도담리 정이관 조합원이 재배한 실원 품종으로 진행되었고 출하 물량은

총 173사자이며 출하된 복숭아는 가락시장 장매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봄철 기상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육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일조량 또한 풍부해 품질과 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가들은 수확부터 선별, 포장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호원농협은 이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공동선별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햇사레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영환 조합장은 "햇사레복숭아는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장호원의 대표 과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광명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광명시

광명시 제10대 의원 당선인들 오리엔테이션 통해 역량 강화

제10대 경기도 광명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원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시의회가 전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광명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제10대 광명시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지원하고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회기 운영, 의원 윤리강령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당선인 간 상견례와 함께 의원 등록 절차, 향후 개원 일정 등에 대한 실무 교육도 이뤄졌다. 의회 관계자는 "제10대 광명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성심껏 지원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내달 1일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튿날인 2일 원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